

2024 년 10 월 6 일 "(생명의 공동체 8) 진정성과 공감으로"(롬 12:14-18)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인격의 요소 중 진정성과 공감능력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는'(15 절) 기독교인의 삶을 가능케합니다.

[1] 내적인 속성이 태도와 행동으로

진정성과 공감능력은 타고 태어나는 부분이 있지만 후천적으로 길러져야 합니다. 이것은 내면으로부터 태도나 행동으로 나타날 때 가치를 발휘합니다.

* 진정성에 관하여

첫째, 속과 겉의 일치(인격의 투명성, 순수함)를 의미합니다. 타인에게 친절해야 함을 알지만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하대한다면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둘째, 인격의 통합성. 규칙을 지키지 않는 직원을 비판하지만 자신은 출근 시간도 안 지키고 비용처리도 투명하게 하지 않는다면 통합성이 깨진 사람입니다.

셋째, 성실성의 문제도 따라옵니다. 성실(신실)하다는 말은 관계를 잘 가꾸고 지키는 태도와 행동을 의미합니다.

* 공감에 관하여

타인의 감정과 경험을 이해하고 그들 입장에서 함께 느끼는 능력을 말합니다. 공감능력이 떨어지면 소통이 어려워지고, 고립되기도 합니다. 또한 신뢰와 협력에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진정성과 공감을 요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내적능력을 길러갈 수 있을까요? 선물로 주신 '믿음'을 활용해야 합니다.

[2] 믿음과 인격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자연적으로 믿음이 생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께 질문도 합니다.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영적 기관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얻었다면 행동과 말로 드러나야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내면에서 역사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반응하기 때문에) 나의 의지를 이용하여 예수님의 방식과 목표를 따르는 삶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약 2:18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약 2:22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므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이때 진정성과 공감능력 같은 내적 요소들은 믿음의 안내에 따라 동기부여와 방향을 잡고 바르게 실천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의 목적을 위해 진정성과 공감능력을 길러내는 것이 나의 생명의 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3] 나의 진정성과 공감이 필요한 사람

나와 싸운 사람? 내가 양육하는 사람? 함께 일하며 협력하는 사람? 피해를 입은 사람...? 어느 누구도 나의 진정성과 공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요소는 관계를 가꾸고 사람됨의 길을 걷게 하는 중요한 인격의 요소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몇 사람을 대상으로 정하시고 나의 진정성과 공감능력을 발휘하는 연습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 '저 사람을 진정성 있고 공감하는 태도로 사랑하도록 가르쳐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내하며 계속하다 보면, 처음에는 나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젠 나와 통하는 사람이 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진정성과 공감능력을 방해하는 것도 발견하여 주님께 올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습성, 욕망, 근심과 불안, 성격장애 요소 등...

진정성과 공감 능력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내가 가졌던 진정성과 공감에 대한 이해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두가지는 왜 중요합니까?
2.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삶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나의 어떤 면이 성장해야 할까요?